

사설

정보 가꾸기 10년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철학자들은 기이하게도 자신의 내면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속박적 영세주의를 유포했으며, 고립된 공간 속에서 소극적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던 것이다. 스토아의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역설이다. 외면적 광창과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기보다 소외와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제국이란, 문명이란 다 그렇다. 행복의 길을 잘못 잡은 탓이다. 에피쿠로스가 제창한 쾌락주의를 생각하자.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감각적 자극이나 세속적 성취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그들은 진정한 쾌락이 자연의 진행에 순응하고 그 조화를 이룰 때 얻어진다는 조용한 평화(ataraxia)임을 역설했다. 그러자면 욕망은 줄이고, 생활은 단순하며, 비삼하게 독립적이어야 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근대 이후의 문명이 쌓아올린 눈부신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불행해지고 황량해지고 있다. 자신의 힘을 거세당했으며 이웃과의 유대를 단절시켰고, 물질의 관성과 독성에 쫓겨 가고 있다. 파국은 인간에게 한정되지 않고 주변의 동식물과 산하까지를 병들게 해 놓았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리라 믿었던 산업과 기계문명의 발전, 그리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오히려 인간의 목을 옥죄며 미래의 시간까지를 위태롭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명에 지친, 그리고 현대에 위기를 느낀 서구인들이 동양의 지혜를 주목하고 있다. 거기에 특히 불교가 있다. 치열하고 철저한 내면적 성찰, 그리고 단순소박한 생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의 정신이야말로 전지구적 위기를 치유할 구원의 가능

성이다. 그 책무를 어디 이방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인가. 한국의 불교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자각하여 전통적 유산을 창조적으로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 벌써 크고 작은 조직과 활동이 중단에서 그리고 재가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신행단체가 있으니, 정토회가 그것이다. 정토회는 그 강령과 이념부터 새롭고 참신하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톡톡히 발 딛고 있다. 연가법(緣起法)을 세계관으로 삼고, 부처님과 보살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으며, 무아(無我)와 무소유(無所有)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다 했다. 기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 나 없이 남이 없고 남 없이 내가 없으니, 내가 불행한데 내가 어찌 행복할 것인가. 이때 남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한 이기기도 하며, 말없는 집중초목과 산하대지이기도 하다. 이 인식을 구현하기 위해 나 자신의 정신적 자각을 위해 수련과 교육에 힘쓰는 한편, 그것의 사회적 응용으로 복지와 구호사업에 힘쓰며, 나아가 이를 환경과 생태의식에도까지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그러한 정토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 기념으로 16일 태국의 환경운동가인 슬락 시바라사를 초청해 존재와 깨달음, 그리고 평화와 환경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불교의 이념과 현대의 대안을 정면에서 다루는 의미있는 장이었다. 우리 함께 정토회를 일구어 나가자. 그곳은 저 멀리 서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구어야 하는 나라이다. 그것을 정토회는 이렇게 그리고 있다.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로우며, 자연은 아름다워 살기 좋은 청정 국토, 그것을 정토회 합니다."

두 회장직대 공동소집 23일 운영위 열고 대의원총회 시기 결정

회장 사퇴와 두 명의 회장직 무대행체로 내용을 겪었던 조계종중앙신도회가 홍욱진 김한곤 두 회장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신도회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홍욱진, 김한곤 두 회장직무대행이 공동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 시기 결정, 후임회장 선임 문제, 사무국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직무대행은 지난 9월 두 차례 만나 중앙신도회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10일에는 부회장이 모여 운영위원회 공동소집안을 신도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두 직무대행은 또 이같은 결정을 조계종중앙신도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도 "중앙신도회 문

中信會 정상화 될듯

제는 신도의 자체적으로 해결할 길 기다려왔다"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두 직무대행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회장직무대행 문제 그동안 신도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신도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신도회는 5월 송재건회장이 사의를 표명해 회장 유고 상태에 이르게 따라 김한곤 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총무원 통보 등의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에 따라 회장직무를 대행한다는 회칙에 따라 다시 홍욱진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돼 사실상 두 명의 직무대행체로 운영돼 왔다.



전태종 관문사(주 지 운덕 총무원장) 낙산 및 삼존불 봉안장, 가명 중국 국청사 방장, 후지 일본천태종무칭 총무원장, 우소비타 미얀마 불교협회 원로회의 의장, 박상규 국민회의 연동회 회장, 박철원 자민련불자회장, 함종환 한나라당 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만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또 이날 법요식에 이어 낙성축하 불공법회와 한·중·일·미인만 4개국 대표 회향만찬도 열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조계종 교과서연구위원회 책임연구원 56명 선정

조계종 교과서연구위원회(위원장 원혜스님)는 13일 각급학교 과목별 교과서 책임연구자 56명을 선정했다.

교과서연구위원회는 연구자들의 모니터 결과를 취합, 자료집을 만들어 12월 9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초청토론회 연다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자초칭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총무원장 후보초칭 토론회와 관련 각 총무원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불교TV와 불교방송도 참여하여 합동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ania.com)

금산사 -도영스님, 백양사 -지선스님

새 주지 추천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에 도영스님, 백양사 주지에 지선스님이 추천됐다.

금산사는 9일 산중총회를 갖고 후임주지에 도영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도영스님은 "금산사 1천4백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호향토록 매진 하겠다"고 재임 소감을 밝혔다.

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차기주지에는 지선스님이 재



추천됐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은 8월 27일 지선스님을 재추천했다. 이에따라 백양사는 9월 10일자로 총무원에 추천서류를 접수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조계종 구족계 381명 수계

조계종 제18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이 12~18일 일정으로 통도사에서 개설했다.

사미 2백1명, 사미니 1백80명 등 3백81명이 입재한 이번 산림은 18일 수계식을 갖는다. 12일 고불사에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은 "계는 본래 악을 그치고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정은 교리를 거두어 육천(六天)에서 초월케 한다. 이 계법이 아니고서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니 계는 진실로 자기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설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연변은 불교불모지대

사찰 1곳뿐...80%이상 개신교인 중국불자 1억명 사찰 1만3천곳

김홍민 연변자치주 종교국장 밝혀

중국 종교인구의 70%가 불교신자이지만,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연변자치주와 개신교 본포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기독교신문협회가 주최한 '중국 조선족 종교문제 심포지움'에 참석한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김홍민 종교국장에 따르면, 인구 2백13만 명인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2백23개 종교시설 가운데 사찰 1, 성당 19, 이슬람 예배당 10곳이며, 나머지 193개는 개신교 교회다. 연변 종교국에 등록된 5만명의 종교인 가운데 4만명이 개신교 신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국장은 "연변의 조선족은 항일투사의 후예들이므로 마땅히 한국의 종교인들이 연변동포를 도와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료·교육 등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등 5개의 종교를 인정한다. 종교인구는 중국인구의 10% 가량인 1억4

천2백만명이다. 불교신자가 1억명으로 중국은 불교대국이다.

▲불교·사찰 1만3천곳. 출가승 20만명, 신자 1억명. 한 나라 때 전래돼 2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사상·문화의 전통성은 불교에 있다. 오늘날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

▲도교·사찰 1천5백곳. 출가승 2만5천명. 노자의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교·예배당 3만곳. 신자 1천8백만명. 중국 서부지방 10개 민족이 신봉. 민족문제와 결합되어 중국정부가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천주교·120개 교구에 성당 4천6백곳, 교직자 4천명. 신자 4백만명(해방 전(1949년)에는 80만명이었다).

▲개신교·교회 3만7천곳. 교직자 1만8천명. 해방 전 신자 수는 70만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2천만명에 이르러 중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헌법 36조에 △종교의 신앙·비선양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내 교파 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컴퓨터 프린터 보내주세요"

연변 조선족사찰 교각사 요청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유일한 조선족 사찰인 교각사 주지 성룡스님이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가 필요하며 고국불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부산불교신도회가 9일 밝혔다.

부산불교신도회에 따르면, 성룡스님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법회를 하고 있으며, 회보

를 두 나라 언어로 만들어야 하므로 컴퓨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성룡스님은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최근 교각사를 창건하고 수행·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부산불교신도회 (051)464-2020.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현대만평



너그럽게...

737-8881

고침 193호 2면기사 중 중국불교협회 수행단장 무비스님과 수행단 학인은 중앙승가대학이 아니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및 학인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 서문짜리 기와때문에 천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 사철기와 재보수 이런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통 합성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成源産業 HP (011)445-7811 아간 (02)502-7811,7827

공 고

종헌 제34조, 85조 및 중앙총회의원선거법, 교구총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2대 중앙총회의선거 및 제2대 교구총회의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제12대 중앙총회의원 선거일(직선) : 불기 2542(98)년 10월 29일(목요일) (음 9월 10일) 오후 1시~4시까지
2. 제12대 중앙총회의원 선출일(직능) : 불기 2542(98)년 10월 26일(월요일) (음 9월 7일) 오후 1시
3. 직능대표 선출위원 소집 및 장소 : 직능선출일정과 동일(장소:총무원4층 회의실)
4. 제2대 교구 총회의원선거일(10인) : 중앙총회의원선거일(직선)과 동일함.
5. 선거구 : 직선중앙총회의원선거 및 교구총회의원선거 : 당해 교구본사
6. 중앙총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직선) : 승랍15년이상, 연령 35세이상의 승려로써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7. 중앙총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직능) : 승납 15년이상, 연령 35세이상의 승려로써 중앙총회의원 선거법 제40조에 규정된 해당분야(울림, 선원, 강원,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중사자
8. 교구 총회의원 입후보자 자격 : 승랍 10년 이상, 연령 30세이상의 교구 재적승 및 거주승(주민등록상년 이상 거주자)으로써 교구총회의원선거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9. 입후보자 등록기간(중앙, 교구) : 불기 2542(98)년 10월 19일~10월 21일(3일간) 오후 5시
10. 입 후보자 등록기간 (직 능) : 불기 2542(98)년 10월 16일~10월 18일(3일간) 오후 5시
11. 입 후 보 자 등 록 서 류 : 1.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 1부
2. 호적등본(원적이 표시된 등본) 2부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12. 입 후 보 자 등 록 장 소 : 당해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교구본사
※직능직 중앙총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등록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은 전국비구니 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13. 중앙총회의원 선거권자자격(직선) :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써 중앙총회의원선거법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선거권이 있다.
14. 직능대표 중앙총회의원 선거권자 : 직능대표선출위원회
15. 교구 총회의원 선거권자 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써 교구본사 재적승(비구), 재적승(본말사주지, 본사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거주승(비구로서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16. 거주승신고기간 : 불기 2542(98)년 9월 26일~10월 2일(7일간)
17. 선거인명부열람기간 : 불기 2542(98)년 10월 19일~10월 23일(5일간)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18.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및 투표소 : 당해 교구본사
19.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전화 : 02)735-5860)

불기 2542(98)년 9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 현 해